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21 Winter
vol. 63



괜찮아!
잘 될 거야!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21 Winter Vol. 63

발행일 2021년 1월 15일(통권 제 63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발행처 서울시 중로구 중로 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기획·디자인 피플페이지(대표전화 02.6674.0111)

*〈세플러+원〉 인터뷰 코너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플러+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NTENTS



Insight #1

다시 돌아보는 2020,
새롭게 시작하는 2021 세플러코리아

6

Insight #2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10

Theme Recipe

더 나은 내일을
노래하다

12

아주 칭찬해

센스있는 당신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14



세플러생이 온다

고생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을 전하는 자리

18

리더에게 묻다

조직원이 따르는
긍정의 리더십

22

열정만렙

입안에 행복을 부르는
달콤한 주문

26

이 문장 별표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보내는 위로

32



팀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갈 우리
함께라면 꿈은 현실이 된다

36

행복한 맛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차린 한상

40

Theme Pick

2021년,
모두 다 되는 해이기를

46

과학상상 그리기 대회

아이들의 상상력이 넘쳐나는
그림이 도착했습니다!

48



Schaeffler Headline

주요 소식

52

Reader's Letter

세플러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4



지금 우리에게 무기력과 절망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잠시나마 팍팍한 현실을 잊게 하는 통쾌한 농담,
이내 돌아온 현실을 위로하는 깊은 공감과 소통,
더 많은 희망과 더 많은 상상들이겠습니다

끝없는 기다림도 결국엔 끝을 기대하는 일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 _____



다시 돌아보는 2020, 새롭게 시작하는 2021 셰플러코리아

“끝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일 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셰플러코리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 마쯔다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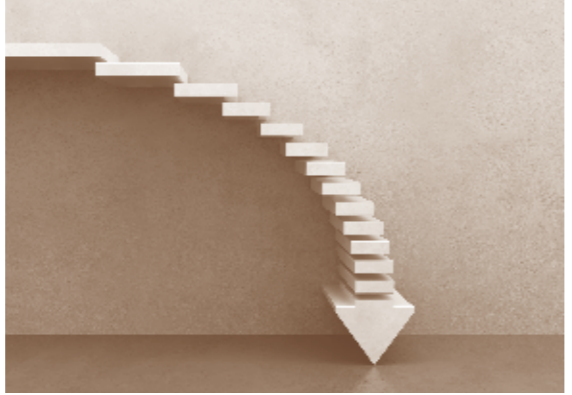


1월 시무식

1년 전 오늘, 셰플러코리아는 MAZDA와 GM으로부터 품질 우수상을 수상하며 우리의 노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순조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선포되며 자국민과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각 정부의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객들의 수요는 급감하였고 셰플러코리아도 최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맞서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비용을 절감했고 세플러 그룹 내 첫 Virtual Event인
창립 기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창립기념식



12월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도
세플러코리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앞으로 전진했고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월 브랜드대상 수상



12월 에버그린 봉사활동

아직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사업, 그리고 신규 생산 라인과 함께
세플러코리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재료기술팀 서상문 주임의 삶의 모토는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다. 이번에 취득한 '금속재료기능장 자격증'은 그 증거의 하나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2021년 새해, 근속 30년을 맞게 된 서상문 주임의 도전과 열정의 이야기를 전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금속재료기능장 자격증 취득
재료기술팀 서상문 주임



*〈세플러+원〉인터뷰 코너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진행한 것으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노력이란 단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 마치 자그마한 씨앗이 아름답리나무로 자라 푸른 잎을 무성하게 드리우고, 풍성한 열매도 맺는 것처럼 말이다. 서상문 주임은 30년 가까이 꾸준한 노력과 자기 혁신으로 현장을 지켜왔다. 창원연구소 재료기술팀 소속으로 개발과 양산 중에 필요한 소재, 열처리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그는, 관련 분야의 베테랑으로 오랜 기간 근무해왔다. “최근에 X-선 회절기를 이용한 정밀분석 잔류 오스테나이트와 잔류 응력 측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업무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후배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꼰대(?)’처럼 보일 수 있겠다 싶은데, 과업을 완수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욕심이니 조금은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노력은 잠자는 능력을 깨운다

나이 오십, 지천명(知天命)을 넘은 나이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무에서 익숙한 명칭과 내용도 암기하려면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느리지만, 꾸준히 반복을 거듭하며 내재화시켰다. 그가 취득한 '금속재료기능장 자격증'은 금속재료에 관한 최고의 숙련기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증표다. 금속재료기능장이 되면 금속열처리와 금속재료의 시험, 안전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현장에서 관련된 작업을 관리하고, 현장훈련과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맡아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신은 비록 늦은 나이에 자격증 도전을 시작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3년 넘는 기간이 필요했지만, 굳게 결심하고 2년 정도 열성을 다해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다.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세플러인 이라면 자기 분야만큼은 최고 전문가라는 마음을



“금속재료기능장은 금속재료에 대한 모든 분야가 해당하는 만큼, 소재와 단조, 소둔·열처리 공정 등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자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와 보증, 협력사 부품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어 세플러인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자격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실무 경험에 전문 지식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저는 이번 자격증 도전을 통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도전이었지만 수년간의 노력으로 얻은 자격이라 성취감이 매우 큼니다. 안팎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조만간 금속재료기술사와 기술지도사 등 상위 자격 취득에도 도전하고 싶다는 서상문 주임. 옮겨올 자격증 시험 때문에 소홀해진 가족에게 충실한 가정이 되기로 약속했다고 흐뭇하게 웃는다. 5

더 나은 내일을 노래하다



잘 될 거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다. 사람들은 그 건강한 사람이 지닌 특유의 싱그러운 에너지를 선망한다. 작년 한 해 남녀노소 모두의 고막과 심장을 사로잡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는 누구보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다리는 이들로 가득했다. 그중에서도 참가자들에게 든든한 말형이 되어준 장민호는 유독 남다른 서사를 품고 오늘에 닿아 있었다. 남다른 간절함과 기다림의 시간을 건너온 그의 도전 일대기를 테마 레시피에서 풀어 본다.

가수 장민호는 <미스터트롯>의 주역을 꿈꿀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프로그램이 막을 내린 뒤에도 뒀다며 그의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캐릭터다. 방송 내내 부침 없이 보여준 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다른 참가자를 향한 매너 있는 모습은 지금껏 그가 걸어온 삶을 향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실제로 하나씩 공개되었던 7전 8기 자수성가의 스토리는 여전히 그를 대표하는 수식으로 따라붙는다.

실제로 장민호의 삶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끈기와 인내, 성실에 가까운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그룹 <유비스>로 또래에 비해 이른 데뷔를 거머쥐었지만 뚜렷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연예계 활동에 발을 담그게 된다. 이후 발라드로 장르를 바꿔 남성 듀오를 구성, 돌파구를 찾았지만 긴 무명의 옷을 벗기란 녹록지 않았다. 결국 생계유지를 위해 수영강사로 보통의 삶에서 열심히 물장구를 쳤고,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아 스튜어드를 준비하기도 하는 등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시간을 보냈다. 연습생에서 연예인이 되기도 어렵지만, 연예인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을 체감했다.

2010년대 초반, 결국 아이돌 가수의 재기를 돕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1등을 차지했지만, 가수 장민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자리걸음을 걷는다는 기분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는 이라면, 이쯤에서 그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는지 남다른 근성에 감탄할 테다. 자고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장민호의 변곡점은 그가 가장 혼란할 때에 온다. 아이돌도, 발라드 무대도 모두 경험해본 그는 마침내 트로트로 전향한다. 잔잔하지만 묵심 있는 행보를 보여주다 2019년, 다시금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한 것이다. 한 명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전 국민 모두가 이름만은 알고 있는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말이다. 이후 그의 등에 얼마나 튼튼한 날개가 달아졌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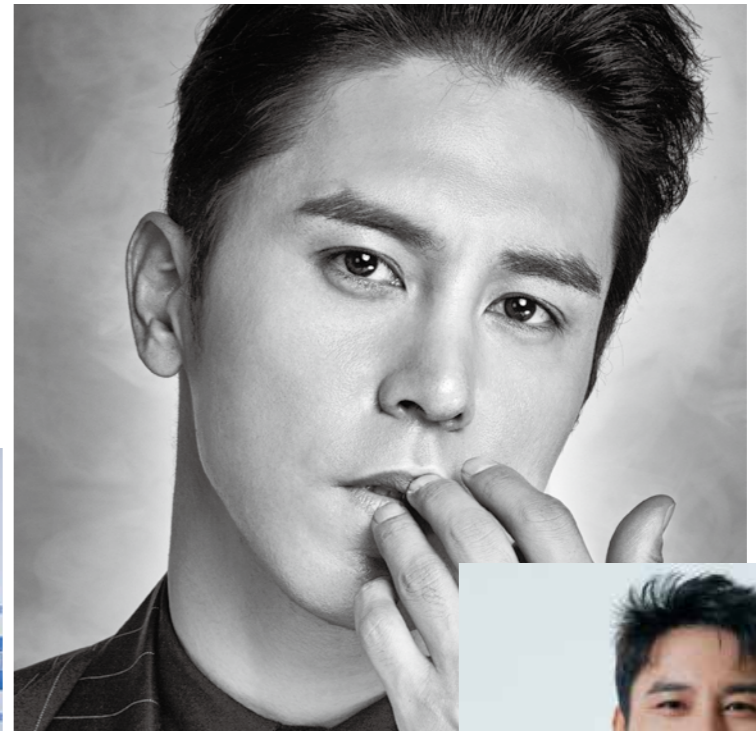
아름다운 기대, 믿어지는 내일



오늘날 우리가 장민호의 시간을 지켜보며 느낄 수 있는 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혹은 1등을 해도 살아남기 힘든 세계에서 마침내 빛나고 있는 그의 성실한 미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스며 있는 다부진 얼굴이다. 이른바 '벼락스타'는 매력적이지만 짧게 지는 별이 되기 쉽다. 우리는 이제 장민호처럼 납득할 만한 서사를 지닌 아이콘에 마음을 나눠주고 싶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근거 있는 희망, 믿을 수 있는 기적이므로. 5



Contributed by TV조선



Contributed by 윈즈엔터테인먼트



Contributed by 동문건설

#Jang Min Ho



plus talk + 솔직 담백해서 더 진솔한 장민호의 다짐

아이돌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죠. 트로트 가수로서도 만만치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솔직히 처음엔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면 이제는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트로트 음악을 너무 사랑하게 됐다고 말예요. 앞으로도 욕심 없이 진솔하게 트로트를 부르고 싶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센스있는 당신



어떤 마음은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쉬이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

고마움도 그때그때 표현하지 않고
쌓이면 결국 미안함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 우리 나를 감동케 만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말해보는 건 어떨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삶 가까이 있는
얼굴들을 떠올려 보자. 고마움이 오롯이
고마움으로만 남아 있을 때

*〈세플러+원〉인터뷰 코너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진행한 것으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 정확한 센스로~

연구소 측정실 권혁동 기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의 업무상
고품 베어링의 여러 측정항목을 기사님께 꾸준히 요청하는데,
권 기사님께서서는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측정해주십니다. 또한,
제가 깜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셔서 센스 있게
추가해주시거나 수정해주십니다. 간혹 긴급 건으로 들어오는
것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십니다.
연구소에서 꼭 필요한 권혁동 기사님 매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김훈 주임연구원 / RPA&벤치마킹팀

권혁동 기사님께 칭찬합니다!



성실함과 존중하는 마음 모두에게 긍정의 힘!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사실 칭찬 받아야 할 사람은 저보다는 김훈
대리입니다. 모든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밝게 인사하는 분이다 보니, 함께 일할 때면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김 대리님!

권혁동 기사 / R&D 서비스 시험평가

감사합니다 김훈 대리님!



긍정적인
에너지이저

성실한 자세

신속 정확

#권혁동기사

긍정적인 마인드와 의지 굿~

신임 계장으로서 현재 문제 되고 있는 TRB 생산성 향상을 위해 타부서와 원만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배수웅 계장을 칭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주변 조원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의지를 심어주는 그의 다정함과 열정을 칭찬합니다.

이정욱 세그먼트장 /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함께 이겨나가요!

타부서와 더욱 더 협력하고 소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시국을 함께 이겨내며 회사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웅 계장 /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튼튼한 동기사랑 아자!~

저는 2018년 1월, 최정기 사원과 함께 세플러에 입사한 동기입니다. 서울사무소와 안성물류로 근무지는 다르지만, 신입사원 연수에서 만나서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최정기 사원은 동기들에게 무심한 듯하면서도 주변을 참 잘 챙기는 오빠이자 형이자 친구였어요. 사정이 생겨서 퇴사하는 동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동기가 있으면 서울 사무소 근처까지 달려와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곤 했지요. 올해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물류 역시 일정하지 않게 업무량이 줄었다가 급증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야근하면서도 동기들의 고민 상담도 다정히 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최정기 사원이 있어서 저희는 참 든든하답니다.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동기사랑 나라사랑 문화를 이어나가는 최정기 사원! 칭찬합니다!

김유정 사원 / 자동차 사업기획팀 (서울)



모두 힘내세요~!

안성 물류에는 동기가 없다 보니 동기들이 들려주는 서울사무소, 전주공장, 안산공장, 창원공장 등 타 사업장의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어요. 고민을 들어주면서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제 고민도 같이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입사 3년 차, 내년이면 대리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바쁘고 정신없을 때, 동기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됩니다. 동기들도 그렇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들아! 코로나 종식되면 모여서 술 한잔 하자! 화이팅!

최정기 사원 / 안성물류



열정에 존경의 감탄사가 뽐뽐!

전주의 Masterplanning 오항서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어요! 매일 한결같은 자기관리에 저희 후배들이 본받고 싶은 모습을 모두 갖추셨죠. 최근에는 퇴근 후 매일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계시는데요, 지치지 않는 열정에 존경의 감탄사가 뽐뽐! 일하면서 규칙적으로 매일 공부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배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후배들을 대해주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너무 과한 칭찬은 고래도 도망갈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하하^^

오영철 대리 / 공장구매 전주

몸도 마음도 함께 튼튼하게, 건강하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자기관리라기보다는, 뱃살 나오는 게 싫어서 시작한 운동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네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할게요. 저를 칭찬해준 오대리님도 어릴 적부터 했던 운동을 지금도 꾸준히 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칭찬 받는 것은 오대리님 몫인 것 같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할 때도 책임감 있는 모습과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옮긴 팀에서도 잘 적응하며 맡은 업무 착실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타고난 세플러인이네요!

오항서 과장 / Masterplanning 전주



상냥함 및 친절함의 모범!

저는 Smart Factory Team 김태현 부장님께 "참 멋지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부장님은 과거 안산공장에 일하시다가 홀로 단신으로 타크라 빌딩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주변 분위기가 서먹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선·후배들에게 상냥함 및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음에도 무언가 보탬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본인께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평소 감사한 마음이 깊었는데, 좋은 기회로 칭찬 릴레이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타인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건강히 회사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파이팅!

이창현 과장 / 오토모티브 시스템 선행 개발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좋게 보셨다고 하니 많이 썩스럽네요.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지난 여름과 추워진 날씨, 게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고객사에 나가신 이과장님과 팀원들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근무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부장 / Smart Factory



고생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을 전하는 자리

우리 민족과 화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화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침은 언제나 폐단을 가져오기 마련. 더구나 언택트 시대를 맞은 요즘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 술 한잔 마시는 대신, 집에서 각자 술과 안주를 준비해 컴퓨터 앞에서 화상 모임을 갖는 '랜선 화식'이 인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화식을 즐길 수 있을까? 세플러의 스마트한 화식문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한다.



1960~70년대생_ 어려웠던 시절, 후배 직원을 다독이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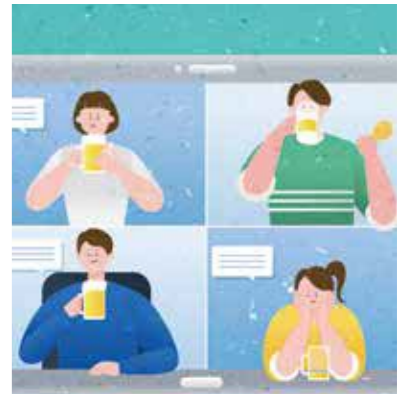
뜻은 하나인데 이미지는 참 다양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화식이다. 농경사회가 산업화를 통해 변화를 겪기 전, 우리는 좁은 땅에 모여 서로 돕고 살면서 가족 간 이웃 간 깊은 유대감을 쌓아 왔다. 한술밥을 나눠 먹으면서 정도 나누고 공동체 의식도 키워 온 것이다. 오죽했으면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사이를 '대포지교(大砲之交)'라고 했을까? 잔을 주고받으면서 정도 주고받고, 이를 통해 의리와 화합을 다져왔다. 어찌 됐든 한국인 특유의 강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확실하다. 지금과 같은 화식은 끼니를 때우기 어렵던 시절, 회사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을 위해 한 끼 식사와 술자리를 마련해 서로의 정을 나누던 방식의 하나였다. 그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은 평소에 미처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드러내고, 상사들은 그런 부하 직원들을 보듬어 주면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갈등을 풀어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산업화 세대의 직장인들에게 화식은 사원들의 생각을 읽고 이해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과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이었다.

1980년대생_ '화식, 이렇게 바뀌요' 화식문화의 변화를 모색하다

화식은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과유불급이 되어 오히려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 사정을 배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화식문화, 변질된 음주문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생이 주도해 화식문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석되며 과거 직장문화의 관성이 차츰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이들 세대 주도로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화식문화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화식문화가 시도됐다. 2000년대에 문화 화식과 레크리에이션 화식을 비롯해 레스토랑 같은 장소에서 분위기 있는 화식을 갖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산업화를 일군 세대와 경제력이 상승한 시대에서 자란 세대의 생각이 시작부터 차이를 갖는다. 한편, 화식은 유쾌함만 있을 수는 없지만,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1990년대생_ 소통이란 상대방의 언어로 시작해야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고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를 통해 조직력을 키우는 데 화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간 적정 화식 횟수는 4.6회 정도면 큰 불만이 없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9년 조사). 다만 화식 장소를 예약하고 세팅을 하고 고기 굽고, 여기에 상사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의전의 연속이라면 피하고 싶다. 업무적으로 쓴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회포를 풀자며 술 한 잔 하자는 것은 더 부담스럽다. 격려와 치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들 생각이다. 이들이 원하는 소통은 업무적인 소통, 근무시간 내에서의 소통이자 협업과 팀워크를 위한 소통이다. 업무 현장에서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맡은 일에 대해 전문적인 피드백을 얻고 싶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만약 이들이 화식 자리에 가서 삼삼오오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성공한 화식이 될 터다. 화식을 다 같이 좋아해야 진정한 소통이라 말할 수 있다. 화식은 이미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시간을 내어 친밀감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나와 다른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할 때 진정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자. 5



언택트 시대의 화식문화,
이렇게 즐겨봐요

랜선 화식, 온라인 술자리가 인기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플릿에 '줌'이나 '스카이프' 등 화상 프로그램을 깔면 준비 끝! '오프라인 모임만 하겠나' 싶지만 의외로 쓸쓸한 재미가 있어요. '코로나 블루(우울증)'를 넘어 '코로나 레드(분노)'를 말하는 요즘, 온라인상에서도 모임을 가져보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니 서로 표정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밤 9시가 넘어도 헤어질 걱정 없어서 회포 풀기도 딱이었죠. 술자리 게임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같이 보거나 온라인 방탈출 등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을 찾아보세요! 배달 앱에서 서로 금액을 정해 서로에게 음식을 시켜주는 것도 꽤 재밌어요.

서울 **70**生

백정호 부장 / TM BD 해외영업팀

40대라도 괜찮아

언젠가 1년에 한 번 보는 대학 동기들 모임에서 “우리 애가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란 걸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만난 신입생 시절이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말야”라고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가속도가 붙어 흐른다는 말이 있는데, 저 또한 어느덧 17년 차 회사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정작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디만, 돌이켜 보면 잘해왔다고 회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도, 마음만 젊게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다독이고 싶네요. “괜찮아~ 예전부터 늙어 보여서 지금은 덜 늙어 보여~”



**그런 너라도
괜찮아**

김대일 대리 / HR 안산

**방구석에만 있는
나라도 괜찮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퇴근 후나 주말에 친구들과 술 한잔 자리도 어려워지고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는 연말 모임도 대부분 취소됐네요. 입사한 뒤로는 매년 11월 경이면 짬을 내어 가까운 곳으로라도 해외여행을 가곤 했었는데, 올해는 방구석에만 있었네요. 그래도 그동안 바쁘다던 핑계로 사놓고 보지 못했던 책을 읽거나 미뤄 두었던 방 정리를 하며 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새로운 취미들도 찾아보고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해외로 나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곧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안산 **80**生

전주 **64**生

이명로 부장 / QA 전주

실수해도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삼십여 년 전, 까마득하다기보다는 바로 엊그제 일처럼 기억이 또렷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도 제 판단 실수로 불량이 발생했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난감해하는 제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고마운 동료들과 선배들 덕분에 힘을 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바로 그 내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생각 외로 큰 도움을 줄 동료와 선배배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하면 할수록 우리 회사같이 정도 많고 협조성이 큰 회사는 정말 드물다고 느낍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분이 정말 많으니까요.



연구소 **70**生

추동균 수석연구원 / R&D 해석기술

집콕이라도 괜찮아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의 늙어가는 모습, 아내의 변해가는 성격, 아이들의 부쩍 커가는 모습들을 바로 곁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이를 통해 회사 일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모두 겪어본 적 없는 힘든 경험을 했지만, 나와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한 템포 쉬어갔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훗날 작은 해프닝으로 올해가 기억될길 바라며, 모두 화이팅!

창원 **92**生

이제호 사원 / HR 창원

요즘 고민이 많은 너라도 괜찮아

요즘 제 친한 회사 동료가 결혼 준비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상견례, 웨딩촬영, 결혼식장, 집 문제 등 생각 보다 챙겨야 할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친구가 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네요. 그 동료에게 응원의 한 마디를 건네고 싶습니다. “결혼 준비로 고민이 많더라도 늘 그래왔듯이 옆에 있는 사람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해! 차근차근 결혼 준비 잘하고 나도 좋은 사람 소개 좀 해줘^^ 앞으로 남은 결혼 준비도 마지막까지 파이팅!”

10년의 리더십 조직원이 따르는

전주공장 최승원 이사(공장장)



“현재 안팎으로 위기 상황이고,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새로이하면 어떨까요? 내일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팀워크에 힘쓰는 사람은 직급과 직책, 나이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세플러+원〉인터뷰 코너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진행한 것으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최승원 이사는 긍정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주공장이 수행해온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왔다. 1998년 입사 이래 20여년, 단순 DGBB와 TRB를 생산하던 전주공장이 IDS, DACBB, Gen.1, Gen.3, Gen.3T 등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개발과 양산화를 주도할 때 중심적인 업무를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 그가 1월 2일, 전주공장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 앞에 섰다. 항상 긍정의 목표와 솔선수범의 성실함을 말하는 그가 이끌어낼 전주공장의 내일, 미래 비전이 궁금해진다.

책임과 규범의 리더십이 팀원의 재능을 깨운다

최승원 이사는 양승욱 전무의 후임으로 2021년 1월부터 전주공장장으로 역할을 맡게 됐다. 그에게 양승욱 전무는 리더십의 규범으로 기억된다. 어느 조출한 식사자리에서 대화가 오가던 중 최승원 이사가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양승욱 전무의 대답, “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게 결정하려고 노력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리더로서 결정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며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금도 리더로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되뇌고 있다는 그다. 또 한 사람은 몇 해 전 함께 근무한 이인석 팀장이다. 친한 선후배이자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세그먼트에서 경쟁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런 이인석 팀장이 같은 조직의 선임으로 업무를 함께하게 되면서 내심 반감지만은 않았다고 회고한다.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저의 팀장으로서 그분이 보여준 모습은 저를 깊이 반성하게 했습니다. 단호한 결정과 군더더기 없는 언행, 그리고 팀원들에 대해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왜 이분이 팀장이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앞에 서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리더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조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리더에게 바라는 모습도 여러 가지이고,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도 없다. 최승원 이사는 “자신의 역량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자신의 리더 상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책과 영화, 현실에서 많은 리더를 만납니다. 리더들의 유형도 다 다르지요. 다만 리더의 참됨은 하나로 귀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리더는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것이 리더를 참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리더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끊임없이 대면합니다. 이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목표를 제시하고 사람들과 함께 당당히 서 있다면 전 그가 리더라 믿습니다.”

지금은 긍정의 비전을 가지고 변화를 내제화하는 노력이 필요

비전형 리더십은 조직원이 리더를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리더십이다. 비전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즉 비전을 조직원과 우선 공유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을 인솔한다.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향해야 할 비전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어 모든 리더가 가져야 하는 기본 자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전형 리더십은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조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자신의 역량 개발이 중요한 이유다.

“외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회사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정체되면 중국엔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구호 변경과 더불어 변신을 시도하고 있죠. 실적이 크게 바뀌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뼈아픈 경험을 하며, 이제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될 겁니다. 우리도 새로운 업무 환경에 따른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비전을 가진 리더십이 꼭 필요한 이유죠. 현재를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면 우리도 비전형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원 이사는 사회 안팎으로 피로감, 우울감, 불안감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목표에 대한 압박, 희망 부재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메시지, 자신감의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가 힘들여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도 아니고 회사가 나를 괴롭혀서도 아닌,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를 겪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단언하는 그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해보지 못한 요리도 해보고, 아이들과 말싸움도 하고, 책도 보고, 낚시도 하고, 명도 때리고... 좋지 않나요? 부담스러운 상사 얼굴도 안 보고, 상사 말에 끄덕끄덕해야 하는 회식도 없어지고, 이 또한 즐겁지 않나요?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고 고난 극복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회가 반드시 장밋빛 희망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지금과 다른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공장장 취임에 앞서 최승원 이사는 구성원을 배려하는 업무 환경 조성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즉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2021년은 전주공장의 새로운 반전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할 일은 활력있는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은 5S를 주축으로 근무 환경과 불합리를 개선해 갈 것이며, 관리의 측면에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을 바탕으로 보다 열린



“세플러에서 22년 근무하면서 리더는 나이나 직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목표를 주시하는 리더들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동료뿐 아니라 그의 상사도 자극하고 리드합니다. 제가 만난 그 리더들을 존경합니다.”



조직원이 리더를 따라가고 싶게 하는 비전형 리더십

저는 강력한 카리스마나 후배 직원에 귀 기울이는 위치가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고, 조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이 늘 강조하듯 철저한 자기관리와 사내 규범 준수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김환진 사원
공정기술 휠베어링 세그먼트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관계, 내가 속해있는 조직의 조직원들과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을 비롯해 여러 선배의 가르침처럼 조직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욱 사원
공정기술 휠베어링 세그먼트

이사님은 자주 꿈을 위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자리를 바꾸며 우리를 이끄는 리더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리더, 앞에서 혹은 뒤에서 우리를 격려해주는 리더입니다.

노현우 차장
공정기술 휠베어링 세그먼트

저도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전주공장의 목표달성을 위해 발산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을 롤모델로 성과를 위해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독심 있는 세플러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기영 대리
공정기술 휠베어링 세그먼트

왼쪽부터 김환진 사원, 이동욱 사원, 최승원 이사, 노현우 차장, 나기영 대리

입안에 행복을 부르는 달콤한 주문



로쉐 초콜릿 만들기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 김현진 주임연구원·김소희 연구원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지만 마음속 사랑살랑 봄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는 당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면? 김현진 주임연구원·김소희 연구원이 로쉐 초콜릿 만들기에 나섰다. 먹기 아까울 만큼 예쁜 모양에 달콤한 맛까지, 매력 어필용 선물로 효과 만점이다.



왼쪽부터 김소희 연구원, 김현진 주임연구원

셰플러의 두 팔방미인, 달달한 맛에 빠져들다

날씨 화창한 11월 어느 날, 창원 연구소 인근의 작은 공방에 옛된 얼굴의 두 사우가 도착했다. 레트로풍의 잔잔한 음악과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 들어서자, 쌀쌀한 공기로 잔뜩 웅크렸던 어깨가 비로소 풀어진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셰플러인 두 사람의 발랄한 인사와 함께 윈데이 클래스가 시작됐다. 김소희 연구원은 한때 불타올랐던 베이킹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으며 기대 어린 눈을 반짝인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바깥에서 무언가를 배울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불을 지퍼볼까 합니다. 가끔 부장님이 ‘요즘은 빵 안들고 와?’라고 물어보시곤 해요. 이번에 초콜릿 들고 갈게요. 부장님!” 그 말을 받아 김현진 주임연구원이 말한다.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김소희 연구원과 운동, 발레, 베이킹 등을 같이 했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할만한 게 없었어요.

마침 이번에 함께 윈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게 돼 너무 좋고, 예전 경험을 살려 재밌게 만들어 가고 싶어요.” 부서 동료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싶다는 두 사람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재료들을 섞고 저으며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 늘 지금만 같기를

초콜릿이나 케이크, 빵 만들기가 흔해진 요즘이기는 해도 직접 무언가를 만들거란 쉽지 않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온 두 사람의 긴장을 풀어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초콜릿을 템퍼링 하는 과정이다. 템퍼링이란 초콜릿에 들어 있는 카카오버터를 열처리해 안정적인 성질로 굳히는 작업인데, 운기 나고 보기 좋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건 우리가 전문이죠!” 호기로운 두 사람의 말에 웃음이

*〈셰플러+원〉인터뷰 코너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진행한 것으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터진다. 김현진 주임연구원은 2016년 8월에 입사해 어느덧 4년 차가 됐다. 김소희 연구원은 2018년 1월에 입사해 곧 3년을 꽉 채우게 됐다. 입사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알고 보니 대학교 선배배였다며 깜짝 놀랐다는 두 사람이다.

김소희 연구원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창원, 그리고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창원 연구소에서 김현진 주임연구원이 룸메이트이자 팀 동료여서 참 다행이라고 말한다. “하루종일 붙어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고, 더구나 입사로 따지면 선배인데 그래도 제가 언니라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저의 의견도 잘 따라줘서 고마워요. ‘혹시나 동생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답니다(웃음). 김현진 주임연구원은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소년다운 반전 매력도 있어요.” 김현진 주임연구원은 김소희 연구원에 대해 “정이 많고 성격이 밝아서 동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회사에서든 일상에서든 많은 힘을 주는 동료이자 언니라고 말하는 그다.

세플러인에게 전하는 희망의 새해 초대장

클래스가 끝날 무렵 각자의 손에 들린 작품은 묘하게 조금씩 달랐다. 만든 사람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 듯이 같은 재료를 써도, 같은 시간을 들여도 손으로 한 작업들은 결국 주인을 닮아가는가 보다. 한 시간 반 넘게 집중했던 이들도 완성된 초콜릿 작품이 흡족한지 개운한 얼굴이다. “연말이 되어 직접 제 손으로 만든 로쉐 초콜릿을 선물할 수 있어 더 기쁘다”며 웃는 모습에 겨울이 아닌 봄이 성큼 다가와 있는 느낌이다. 클래스가 끝나고 한껏 들떠있는 두 사람에게 소감을 들어봤다. 김현진 주임연구원은 “오랜만에 일탈이 보람찼다”며, 혼자라도 더 어려운 과정에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김소희 연구원 역시 “다음엔 더 멋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자신이 만든 초콜릿에 연신 감탄하는 모습이다. 시작할 때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진 두 사람. “취미가 주는 설렘을 충분히 느꼈다”, “앞으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5



“2020년을 ‘잃어버린 해’라고 표현하던데, 저 역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러한 상황에 많이 지치기도 했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해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해서 달콤한 디저트를 나눠 먹고 싶어요.”

김소희 연구원



“팀원끼리 얼굴 보기가 힘든 날들이 많았던 올해였지만 소소한 좋은 일도 있었죠. 도정호 부장님도 이사 승진이란 경사를 맞았고요. 제대로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고 싶어요. 2021년에는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하기를, 꼭 건강하기를 바라는 응원도 담았습니다.”

김현진 주임연구원



“내년에는 대리 2년 차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커리어를 높이고 자기개발도 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게 제 계획입니다.”
김현진 주임연구원

“올해 처음 세웠던 계획을 다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쉬지 않고 꾸준히 해왔다고 위로해요. 내년에는 저도 대리로 진급하게 되고 새로운 분위기가 될 것 같아 기대가 아주 커요.”
김소희 연구원

집에서 도전해보자!
로쉐 초콜릿 만들기

준비물

아몬드스틱(칼아몬드) 150g, 크랜베리 40g, 견과류 40g, 템퍼링한 초콜릿(열을 가해 성질을 안정화시킨 초콜릿) 165g, 설탕 45g, 버터 10g, 물 20g

만드는 순서

- ① 냄비에 물과 설탕을 넣고 117℃까지 끓인다.
- ② 불에서 내려 아몬드스틱을 넣고 하얗게 결정화될 때까지 빠르게 저어준다.
- ③ 다시 불에 올려 투명한 갈색이 될 때까지 (캐러멜라이즈) 천천히 저어준다.
- ④ 버터를 넣어 섞어주고, 시트에 얇게 펴서 식힌다.
- ⑤ 식히면서 아몬드스틱이 최대한 날알로 분리되도록 떼어준 뒤 완전히 식힌다.
- ⑥ 아몬드스틱, 크랜베리, 견과류를 템퍼링한 초콜릿에 버무리 솔방울 모양으로 쌓는다.



소요 시간
1시간 30분

보존
상온에서 4주 이내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보내는 위로

괜찮아

잘 될꺼야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진 비바람을 견디어내야 한다. 인생에서 험난한 고통과 투쟁 속에서 몸부림쳐야 할 때가 있다.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나면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5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나를 잃지만 잃으면 돼

"곰돌이 푸" 中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中

바람이 오면 오는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그리움이 오면 오는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아픔도 오겠죠. 머물러 살겠죠. 살다가 가겠죠...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中

빈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법정스님의 "물소리 바람소리" 中

하찮은 어제가 모여, 괜찮은 오늘이 된다.

드라마 "하찮아도 괜찮아" 中-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의 좋은 생각" 정호승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 보다 잘하려 애쓰는 게 중요해요.

윌리엄 포크너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간단히 니 마음을 속여봐.
마음은 바보라서 그 주문에 매혹될거야.
휘파람을 불며 외쳐봐.
"ALL IS WELL"

영화 "세 일간이" 中

힘겨운 상황에 부딪치고 모든 게 장애로 느껴질 때,
단 1분조차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바로 그런 시점과 위치에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한다.

해리엇 비처 스토투

별일 아니라는 말보다, 괜찮을 거란 말보다,
나랑 똑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백배 천배 위로가 된다.

드라마 "또 오해영" 中-

희망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우세한지 계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란 그저 행동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안나 라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오래된 유행가를 흥얼거립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순진하고 무구한 멜로디와 가사가
이제는 유치하게 느껴지지만,
덕분에 헛웃음이나마 새어 나옵니다.

무엇이든 희망하기 어려운 시대를 건너고 있지만,
일부러 희망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요.
심각한 표정을 하며 희망이 없다 믿는 일보다는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 편이 더 나으니깐요.
그러니 주문을 외워봅시다.
'오늘의 고단함도 내일은 시들어
새로운 꽃이 필 것만 같다.' 라고요

다가오는 희망

전주공장 볼스크류 국산화를 책임지는 새시 어플리케이션 세그먼트의 6인방이 한 자리에 모였다. 누군가는 농구공을 던지고, 누군가는 운전대를 잡고, 또 누군가는 동료들과 함께 클레이사격을 경험한다. 보람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추억이 되는 소중한 시간. 팀과 함께하는 순간이 하루를 아름답게 채색한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갈 우리

함께라면 꿈은 현실이 된다

새시 어플리케이션 세그먼트
볼스크류 국산화 6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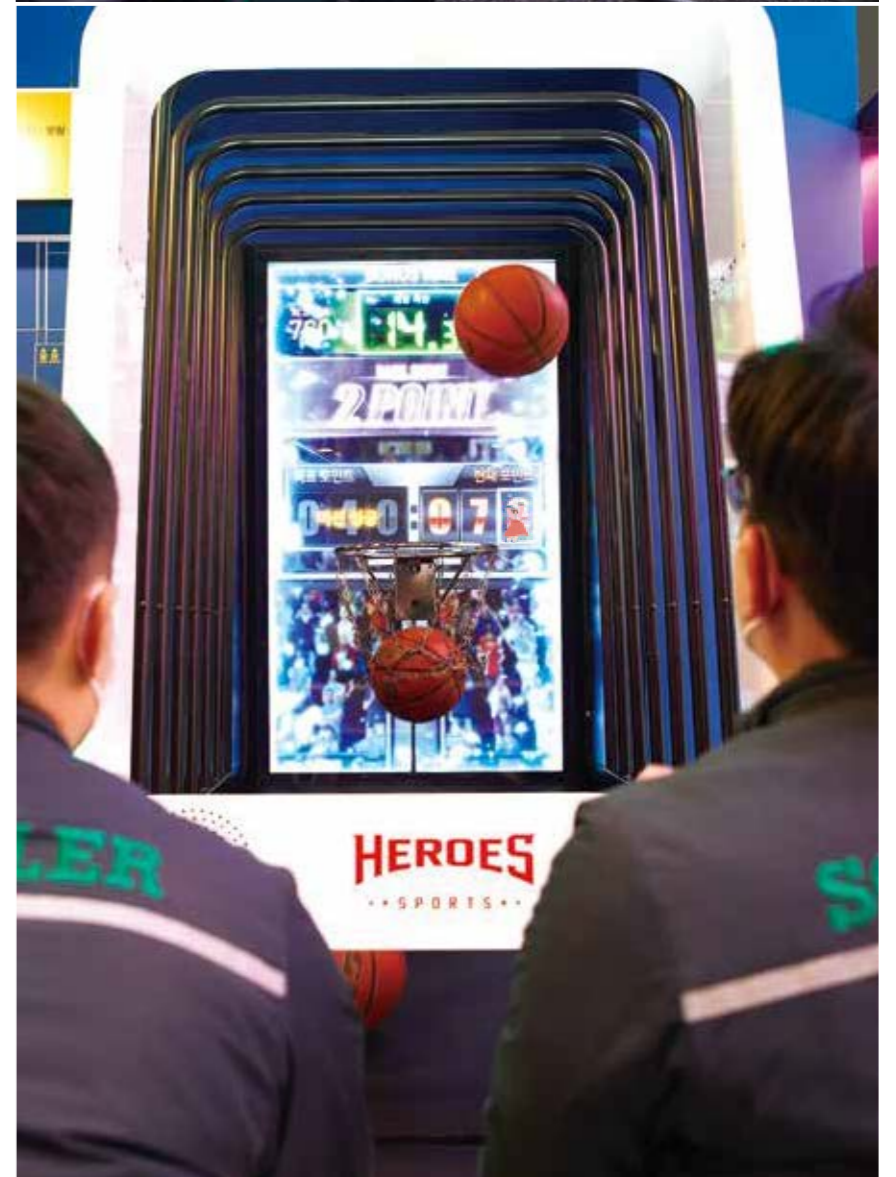
역시 함께라서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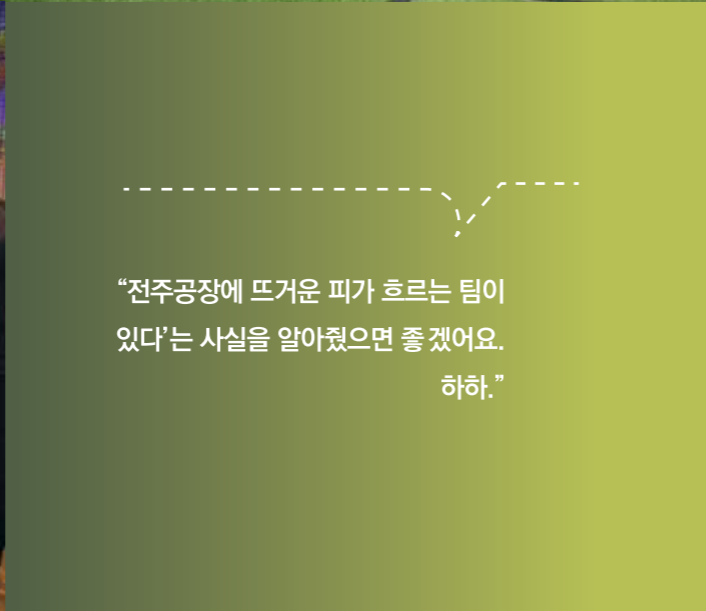
지난 9~10월, 슬로바키아 교육 현장에서 전주공장 볼스크류 국산화에 앞장서는 새시 어플리케이션 세그먼트의 6인방이 뭉쳤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환상적인 호흡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김남희 부장을 비롯한 6인의 뜨거운 열정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의미다. 12월의 어느 날, 팀워크로 푹푹 뭉친 그들이 짜릿한 재미와 몰입감 만점의 멀티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 체험에 나섰다. 한겨울 땀추위가 이들에게 무슨 대수일까. 10월 초, 슬로바키아에서 귀국 후 오랜만에 모여서인지 다들 들뜬 기색이 역력하다. “요새 몸이 찌뿌둥했는데, 간만에 몸 좀 풀고 오렵니다.” “집-회사, 회사-집의 쳃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루였는데 모처럼 기충전을 해볼게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즐거운 체험을 하며 놀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마다 기분이 좋은 듯하다. 회사에서 출발해 10여 분, 전주 신시가지에 자리한 테마파크는 1층부터 4층까지 즐길 거리, 놀 거리로 가득했다. 이곳에 들어서니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멀티스크린 스포츠 체험을 하기 전, 멀티스크린 스포츠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체험 방법, 안전 수칙, 그리고 방역 수칙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체험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태그 카드를 한 장씩 받고 설명을 듣는 이들의 태도가 꽤 진지하다.

*《세플러+원》인터뷰 코너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진행한 것으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요새 몸이 찌뿌둥했는데, 간만에 몸 좀 풀고 오렵니다.”

“집-회사, 회사-집의 쳃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루였는데 모처럼 기충전을 해볼게요.”





“전주공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하.”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 화합하고 의지를 북돋우면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마다 얼굴이 반짝반짝, 흥미진진한 게임 체험!

직원들은 각자 혼자서 또는 둘이서 테마파크를 돌아다녔다.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또는 야구 배트를 손에 잡고, 더러는 추억 돌는 옛 게임도 하며 유쾌, 상쾌, 통쾌한 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2층에서는 액션 레이싱이 펼쳐지고 있었다. 두 명의 팀원이 광택으로 번쩍거리는 스포츠카에 올라 도로로 나섰다. 아스팔트 위를 2~3분쯤 달렸을까. 이내 바다로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나타났다. 주행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들쭉거리더니 순식간에 도로 오른쪽으로 튕겨 나간다. “이거 뭐야, 이제 막 났는데 벌써 나가버리면 어쩌해! 창피하게!” 뒷자리에서 스크린을 구경하던 동료들이 깔깔 웃자, 운전대를 잡고 있던 팀원이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한다. “에이, 제 깊은 뜻도 모르시면서. 분위기 좋게 하려고 제가 개그 좀 한 겁니다! 일부러 그러기도 쉽지 않다고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주행 초반, 오랜만에 게임을 하는 탓에 앞만 보며 달리던 그를 보며 동료들은 한바탕 크게 웃었다.

3층에서는 토스배팅 게임이 한창이었다. 두 명의 팀원이 다양한 주사 상황에서 다득점을 기록하기 위해 경쟁하는 게임인데, 야구 배트를 꼭 쥐고 스크린을 노려보는 모습이 마치 선수의 표정과 다를 바 없었다. 스크린 중간의 조그만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공은 제법 빨랐고, 헛스윙과 땅볼이 몇 개 이어지다가 ‘깡’ 소리와 함께 배트에 제대로 맞은 공이 데굴데굴 굴러갔다. 중전안타가 터지며 스피커에서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순식간에 2점이 나자 표정 속에 흐뭇한 웃음이 번졌다. “공에 맞는 느낌이 아주 짜릿하네!” “이거 아차 하면 제가 질 수도 있겠는데요. 현장감이 최고예요.” 4층에서는 클레이사격 게임이 흥미롭게 진행됐다. 신호와 함께 하늘로 솟아오르는 원반(클레이)을 총으로 쏘아 맞히는 게임인데, 원반을 맞출 때마다 동료들이 응원과 박수가 이어졌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클레이사격을 즐기던 팀원은 “다른 게임도 하고 싶은데, 손을 놓질 못하겠네”라며 멋쩍게 웃었다.

함께하는 동지가 있어 행복한 사람들

한동안 몸을 움직여 게임을 즐긴 직원들이 삼삼오오 1층에 모였다. 간만에 윈 없이 놀아봤다며 한껏 상기된 얼굴들이다. “2021년에 더 열심히 땀 수 있도록 팀 화합을 도모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내믹한 멀티스크린 스포츠 체험으로 팀원 모두 활력을 얻었습니다.” 김남희 부장의 말에 이재익 차장이 덧붙여 말한다. “이번 사보를 통해 ‘전주공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하.” 2021년이면 전주공장의 신규 프로젝트로 볼스크류라인이 본격 가동돼 새로운 활로를 연다. 회사 안팎으로 기대도 크다. “볼스크류라인의 성공적인 가동을 통해 이와 유사한 아이템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세플러코리아의 미래적인 먹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 화합하고 의지를 북돋우면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봉구 과장은 “이미 슬로바키아에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하는 동기가 있어 아주 대단한 팀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항상 일하면서 겪는 여러 사항을 듣고 조언하며,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갈 것이라며 중간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곧 정식으로 조직을 꾸려 튼튼한 팀을 만들겠습니다. 제품 교육과 업무에 대한 피드백에 힘쓰는 만큼 조기에 전주공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남희 부장은 실적으로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늘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로 팀원과 함께하려는 김남희 부장,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며 후배들을 따뜻하게 다독이는 이재익 차장, 언제나 만행처럼 든든한 정봉구 과장 그리고 이들을 믿고 따르는 팀원들이 있기에 이들은 모두의 바람대로 나날이 발전할 것이다. 꾸준히 소통하고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볼스크류라인의 목표 달성도 문제없으리라 기대한다. S



윗줄 왼쪽부터 김호중 사원, 김남희 부장, 임봉환 사원, 정봉구 과장, 이재익 차장, 전익영 사원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차린 한상



같은 레시피라도 누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이 된다. 최적의 재료와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베어링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는 이들, 창원 소/중형 볼베어링팀이 특급 요리사로 나섰다. 누구든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소중한 결과를 창출한다. 꿈도 그렇다. 최선의 노력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청명한 어느 늦가을 날, 창원 소/중형 볼베어링팀 4인방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최상곤 부장(1994년 입사), 이경형·이왕주 사원(1988년 입사), 조광우 대리(2018년 입사) 등이 이들이다. 즐겁고 뜻깊은 회동을 통해 이들의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세플러+원〉인터뷰 코너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왼쪽부터
최상곤 부장, 조광우 대리,
이왕주 사원, 이경형 사원

볼베어링의
숨은 히어로

최상곤 6월에 팀이 결성된 이후 서로 모일 자리가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게 지내시지요? 팀원들이 그동안 차원이 다른 수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요구된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한 발 한 발 정진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다지고 기본부터,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한계를 극복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소중한 결과를
창출한다.
꿈도 그렇다.
최선의 노력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왕주 한창 작업 중일 때는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부족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니 오랜만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현장에 복귀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하겠지만요(웃음). 6월부터 지금까지 참 다사다난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과업을 맡아 밤낮으로 고심하는 팀원들을 보며 안타깝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전에는 잘 모르던 사람들이 팀이 구성되면서 하나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뭉치며 부대끼다 보니 동질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지금은 한 가족 같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이경형 지난 9월부터는 팀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각자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스테디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었고,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기도 했죠. 내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전기기관으로 전환되는 현시점에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할 지도요.

조광우 자동차 산업은 지금 격동의 시대라 말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위기란 어쩌면 변화와 발전을 위한 환경과 조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회사든 위기는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탄탄한 회사도 위기는 항상 있는 법, 흔히 '잘 나갈 때가 위기다'라고 하잖아요?

최상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겪게 되죠. 세상은 계속 변하게 마련이고, 위기란 기본적으로 변화의 한 부분이니깐요. 그런데 위기가 일반적인 변화와 다른 것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이기기 힘들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는 경쟁자들로부터 고객들을 떼어낼 수 있고 인재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성장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세플러코리아의 역사는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다.
언제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계라는 언덕을 넘어서
왔다.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이 오늘의 세플러코리아를
만들어낸 것이다. 모두의 땀으로 써내려간 영광의
역사를 기억하자.

다시 한 번 더,
볼베어링의 무한 가능성을 실현하다

이경형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계를 넘어서면 다시 어떤 한계가 닥칠지 모르지만,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조광우 사실 사람인지라 한계에 맞닿으면 누구나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든 한 번은 한계 상황이 오죠. 그렇지만 한계 상황은 결국 받아들이기 나름이라 생각해요.

최상곤 맞아요. 한계점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마라톤 선수에게 10km 달리기 정도는 가벼운 달리기이고, 반면에 뛰어보지 않은 일반인에게 10km는 분명 한계일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한계 상황이라고 만들어놓은 그 지점을 넘어야 새롭게 발전하는 나를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왕주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현재에 안주하게 되겠지요. 두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한계 상황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최상곤 사실 아무도 두렵다는 느낌을 부여한 사람은 없죠. 오직 스스로가 두렵다는 명령어를 자신에게 주입했을 뿐이에요. 한계 상황이 다가오면 긍정하고 또 긍정해야 합니다. 한계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부정적 바이러스(Entropy)일 뿐입니다.

조광우 그런 것 같아요. 10km라는 거리를 두렵게 느꼈던 사람이 그 한계점을 한번 뛰어넘으면 더 이상 10km는 것처럼요. 팀이 구성된 지 반년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인 만큼 지난날을 정리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곤 “왜 안 될까?”, “이것도 안될 거야”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에는 우리의 삶,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강철 같은 의지와 따뜻한 동료애로 우리 앞에 펼쳐진 한계 상황을 극복해봅시다. **S**

최상곤 부장 / 소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두 개의 어항 중 한쪽에는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다른 쪽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물고기가 더 건강할까요? 정답은 여러 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는 더 빨리 움직여야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만큼 더 기운차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어항은 우리가 사는 세계, 낯 놓고 있다 먹이를 빼앗기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잘 될 거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다 노력을 기울여봅시다.



이왕주 사원 / 소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정직하게, 우직하게. 괜한 품수를 부리지 말고 기본부터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정한 기대치를 뛰어넘는 돌파력만이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현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앞장서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경형 사원 / 소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늘 평안한 상태로 지낸다면 자신을 돌아볼 계기도, 부족한 점을 알 시간도 없겠죠. 지금 우리는 더 큰 자신이 되기 위한 기회 앞에서 있습니다.



조광우 대리 / 품질 창원 Customer Service

생각해보면 한계란 '도전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핑계'가 아니라, 더욱 발전된 자신을 발견하는 길로 이끄는 존재가 아닐까요. 어느 정도의 한계나 어려움, 장애물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용기 내어 끌어안아야 할 겁니다. '기다린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2021년, 모두 다 되는 해이기를

새로운 해를 맞는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날들이지요.
그래도 잘 될 거라는 믿음과 끝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S**

안산 최춘현 사원 / 설비보전팀



올가을,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벌써 2021년이 다가오네요. 2021년은 사진 속 태양처럼 희망으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두 딸의 취업이 꼭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일몰 #제주도여행 #2021년

#4 관철아 잘 될 거야



창원 강문조 사원 / 협력사 개발



2020년을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이른 새벽 포함 호미곶으로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서둘러 운전하여 호미곶에 도착하니, 이른 새벽에도 많은 사람이 차가운 바닷바람에 맞서 해가 뜨길 기다리고 있더군요. 잠시 후 커다랗고 붉은 해가 바다 끝에서 떠올랐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붉은 해를 바라보며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바람을 기도했습니다. 세플러의 모든 사우분들께서도 남은 올해 유종의미를 거두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마무리 #가족과함께 #유종의미거두자

전주 나기영 대리 / 공정기술 휠베어링 세그먼트



힘들 때 이따금 포함 호미곶 해돋이 사진을 꺼내 보곤 합니다. 2020년의 시작과 함께 동해 해돋이를 보며 새해 소망과 목표를 다짐했던 기억을 더듬어 지친 마음을 다잡고 긍정적인 기운을 재충전합니다. 유난히 흐린 날씨로 또렷한 해돋이를 사진에 담을 수 없었지만, 가슴 벅찬 감동의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멀리 가진 못하지만, 올해에도 가까운 곳에서 해돋이를 보며 활기찬 2021년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뻘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기도해보겠습니다! #2020년의끝

서울 박지수 대리 / Industrial Pricing



저와 올해 크리스마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줄 트리를 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외부활동이 단절되어 집안에만 있다가 보니 답답하고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자 작은 벽걸이 트리 장식을 꾸며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트리 장식 하나지만, 보고 있으면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네요. 생각이 많아 정리가 필요할 때쯤, 트리 장식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곤 한답니다. 올 연말에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연말에 트리 장식 하나 꾸며보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트리꾸미기 #집콕인테리어 #따뜻해진우리집

연구스 백상하 주임연구원 / 폴리머&윤활기술팀



새해를 맞이하여 친구와 지리산 무박 종주를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노고단에서 마주한 일출에 웅장해진 마음도 고된 등산에 금세 식어갔지요. 심지어 길을 잃은 지 13시간 후 겨우 마을을 찾았고 결국 종주를 포기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도전, 노고단의 일출, 길을 잃고 느낀 두려움, 긴 등산 후 맛보는 음료까지 힘들고 좋았던 모든 기억은 시간이 지난 지금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주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가 먼 훗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파이팅! #친구와지리산무박 #힘들었지만소중한추억

아이들의 상상력이 넘쳐나는 그림이 도착했습니다!

제 1회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세플러코리아는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를 공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관심으로 많은 자녀가 참여하여 그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 3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작 외에도 훌륭한 수상작들을 사보에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는 장려상으로 뽑힌 안성 물류센터 신동철 사원의 자녀 신주아(10) 외 참여한 4점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수상자 안내

최우수상

서울사무소 이광렬 부장
(HR서비스)
자녀 이수진 (17)

우수상

서울사무소 이선종 부장
(Customer Service Industrial)
자녀 이찬준(12)

서울사무소 김성만 부장
(Global Technology Service AP)
자녀 김서울(11)

장려상

안성물류 신동철 사원 (안성물류)
자녀 신주아(10)

창원공장 한유동 사원 (품질보증)
자녀 한시현(13)

테크놀로지 배재은 책임연구원
(전기 설계)
자녀 배수빈(13)

세플러코리아 과학상상 그리기대회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16일 동안 세플러코리아에서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총 59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아이들의 넘치는 상상력이 담긴 다양한 그림들과 어린아이가 했을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급의 그림에 심사를 맡은 사보 제작 담당자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묻어나는 작품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작품들을 심사하였다. ⑤



장려상

안성 물류센터
신동철 사원의 자녀 신주아 (10)

바닷속에서 내가 꿈꾸는 세상
지상 친구들과 바닷속 친구들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고래 위 잔디에선 동물들이 함께 친구가 되고 놀이터에선 물고기와 슬래잡기 하며 신나게 놀 수 있는 바닷속 풍경



장려상

전용기 개발팀
배재은 차장의 자녀 배수빈 (13)

지구온난화나 환경 파괴로 사람들이 더는 지구에 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다른 행성으로 떠난다. 유리막으로 덮어진 도시는 지구의 환경과 비슷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리고 튜브를 오갈 수 있는 계란 모양의 차는 한번에 많은 것을 운반하기 좋다.



장려상

품질보증 한유동 사원의 자녀 한시환 (13)

우주도시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비행들도 하고 우주에 도시를 건설해서 사람들이 같이 생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보았다. 우주선을 직접 조종해서 우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설렌다.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참가상 작품소개



오토모티브 시스템 선행 개발 박성탄 매니저의
자녀 박규빈 (8)



창원공장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조규석 팀리더의
자녀 조가혜 (8)



세플러코리아 2020 대한민국 산업 브랜드 대상 수상



네이버 포스트

세플러코리아가 2020 대한민국 산업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더욱 신뢰받는 세플러코리아가 되겠습니다.

SCHAEFFLER

세플러의 혁신 '케이지 가이드 니들 롤러 베어링', 전 세계 누적판매 1천억 개 달성

세플러의 '케이지 가이드 니들 롤러 베어링'이 전 세계 누적 판매 1천억 개를 달성했다. 케이지 가이드 니들 롤러 베어링은 1950년 세플러그룹의 창업주 게오르크 세플러(Georg Schaeffler) 박사가 발명해 특허 출원한 제품이다. 70년 특허 출원한 이래로 1천억 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세플러 니들 롤러 베어링 종류는 1만 5천여 종에 달한다.

세플러 니들 롤러 베어링은 E-모빌리티 분야 전기 액셀 드라이브, 협동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플러는 2018년부터 아우디의 전기차 e-트론에 세플러의 니들 롤러 베어링이 적용된 전기 액셀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경량 로봇 및 협동로봇의 팔 관절 지지용 베어링과 로봇 관절의 감속 기어장치인 RTWH 정밀 기어박스에 세플러의 앵글러 콘택트 니들 롤러 베어링(XZU)이 적용된다.



세플러 그룹, 새 슬로건 및 3개 사업부 로드맵 2025발표

세플러 그룹이 "We pioneer motion"을 새로운 기업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각화된 자동차 및 산업기계 공급업체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선포했다. 또한,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 및 인더스트리얼 사업부별 핵심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세플러 그룹은 연료전지와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전해조 장비와 같은 수소 기술 부문에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30년 이후부터 CO2 중립적 생산을 목표로 사업부 및 지역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세플러 그룹의 CEO 클라우스 로젠펠트(Klaus Rosenfeld)는 "세플러의 차별화 요소인 혁신, 우수한 제조 역량, 최고의 품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혁신을 지속하고 핵심 역량과 일관된 전략 실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로드맵 2025는 세플러 그룹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전략이다. 우리는 성장 기회를 더 잘 활용하고, 그룹의 시너지를 더 크게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앞으로도 최고의 기술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세플러코리아, 연말 맞이 사회 공헌 활동 펼쳐 '희망나눔 장학금' 및 '연탄 나눔 봉사'

세플러코리아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희망나눔 장학금' 및 '연탄 나눔 봉사' 등 다양한 연말 맞이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세플러코리아 임직원과 에버그린 8기 학생들은 지난 12월 5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북정마을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한 가정에 연탄 200장씩, 총 6가정에 1,200장이 전달되었으며, 식료품 역시 함께 전달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 3천 3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 장학금은 창원시 저소득층 학생 66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된다. 최근 10년간 장학금 누적 금액은 14억 2,480만 원이며, 누적 수혜자는 1,945명이다. 이밖에 세플러코리아 전주사업장에서도 해마다 3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플러코리아는 1995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회사의 출연을 통해 조성된 사내 기부 펀드 '밝은 세상 만들기'를 통해 최근 10년간 누적 금액 20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세플러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모바일 음료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명단

퀴즈

서울 이현준(이선중 부장 자녀)
안산 김현성 사원(엔진부품 세그먼트)
석정원 사원(지공구서비스)
창원 선선빈(선민수 과장 자녀)
남진우 대리(생산물류)
그 외 정미란(신한베어링상사)

숨은 캐릭터 찾기

서울 정소영, 이수현 대리(사업관리)
전주 박한규 사원(블베어링 세그먼트)
김선아 사원(전주물류)
창원 한유동 사원(품질보증)
안성 황장호 부장(안성물류)

사보기자단

서울 박지수 대리, 김유정 사원
창원 기대환 부장, 손강우 사원
안산 정매근 대리
전주 김상연 사원, 최규철 사원
연구소 박광수 주임연구원, 손용훈 사원

사보담당자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민유정 차장, 주윤선 대리

참여방법

보내실 곳 - jooyun@schaeffler.com
보내실 때 - 코너제목/ 이름/ 소속/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응모 마감 -2월 30일까지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문자보내기**로 편리하게 바로 보내세요.
*문자보내기-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담당자 메일**을 넣어 **전송** 끝.

퀴즈

<세플러+원> 코너 중 이색취미를 소개하는 '열정만렙'에서 이번에는 달콤한 초콜릿을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초콜릿을 녹여 건과류에 입히는 '○○초콜릿'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서 ○○에 들어갈 두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바로 보내주세요.

숨은 캐릭터 찾기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희망찬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0에서 다시 1로 시작되는 새로운 해, 그 기운을 받아 지난해를 씻어내고
기운찬 복을 돌우는 4명의 캐릭터를 사보 안에서 찾아보세요.



인증샷 보내기

사연. 이번 호 재밌게 보셨나요? 사보 인증샷과 코멘트를 보내주세요.

추천. 참여하고 싶은 코너가 있으시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코너 추천·사연은 기한 없이 보내주세요.

2021년 세플러코리아 임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상력 공모전

상상하는 대로~ 6컷 만화 말풍선 채우기

1 상상력을 발휘하여 말풍선을 ①~⑨번 까지 순서대로 채워넣는다.

2 다섯째 ⑤번 칸은 그림과 말을 함께 만들어 채운다.

3 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에 제목과 ①~④, 다섯 번째 그림까지 보내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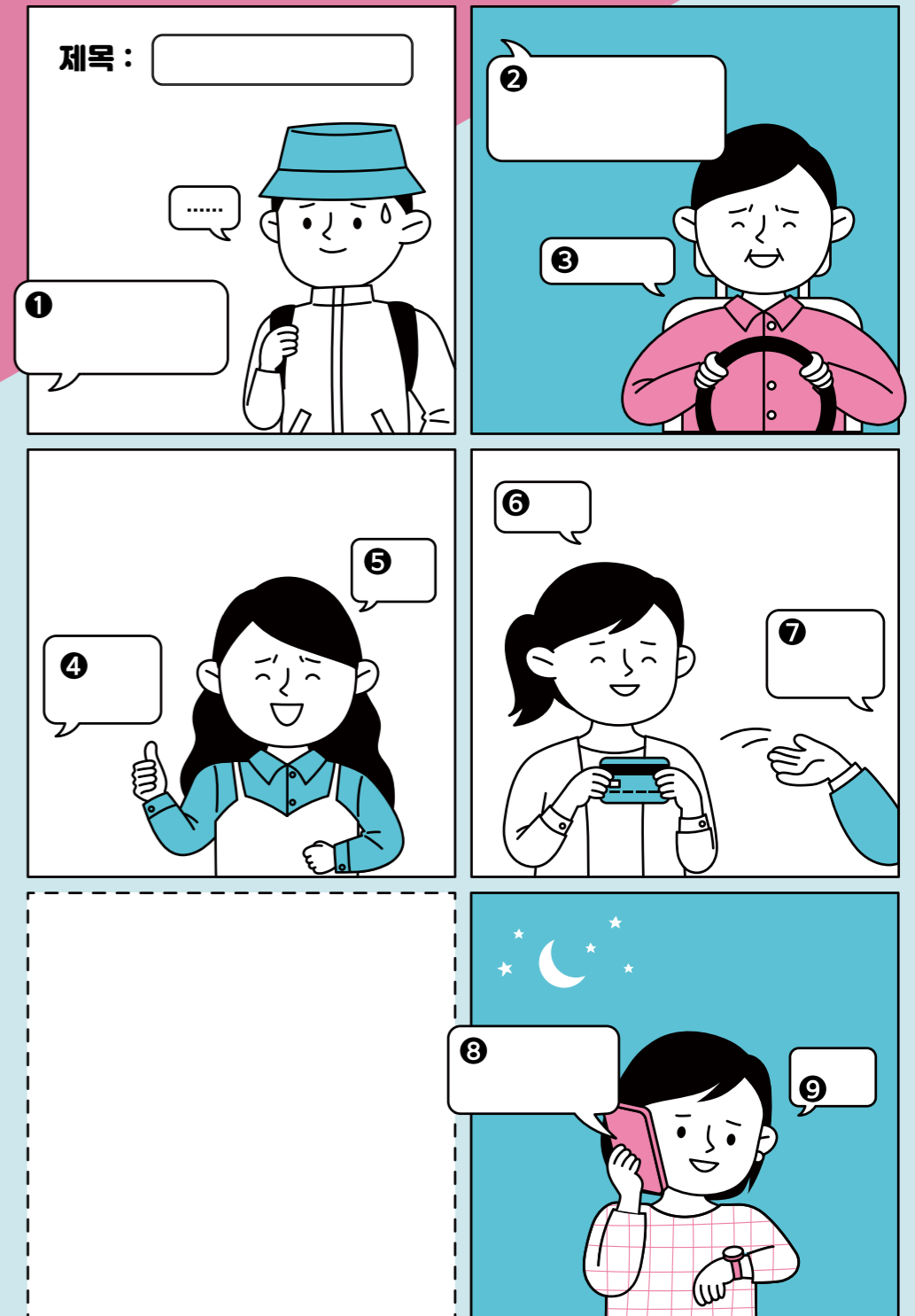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 보내실 곳
jooyun@schaeffler.com
또는 010.3494.9585
(문자 메시지 + 그림 사진 첨부)

✓✓ 보내실 때
코너제목/이름/소속/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응모 마감
2021년 2월 19일까지



“ 세플러 사보가 찾아갈 ”
집 주소를 알려주세요!



주소 변동으로 인해 사보를 받지 못하신 사우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주윤선 대리(jooyun@schaeffler.com)
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